< 해바라기 > 5566 여성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감동과 기쁨의 이야기들

주바라기로 거듭난 ‘ 3일간의 동행 ‘

‘해바라기’에 참석하는 어머니들을 축복하는 가족들의 메시지가 서빙고 온누리교회 입구를 장식했다. 짧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메시지는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 심춘섭
사랑하는 어머님! 꽃을 사랑하는 곱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어머님. 늘 감사하지만 표현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곱고 예쁜 얼굴이 자식, 남편을 위해서 그늘지고 주름잡힌 어머님. 이제 주님을 만나 정말정말 사랑받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어머님.
며느리 박재연 드림

- 정문숙
사랑하는 엄마
항상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라고 격려해주셨던 천사같은 우리 엄마. 이젠 하나님 안에서 엄마가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을 맛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엄마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우리 영원히 영원히 함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엄마의 외동딸 정림

- 한영주
엄마, 절 믿고 멀리 포항에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3일동안 정말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래요. 엄마께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은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인내와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어느 때보다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막내 은주 올림.

- 심명자
엄마! 엄마는 우리 모두의 희망과 힘이에요. 너무 사랑하고, 이번 해바라기 축제 속에서 멋진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세요. 윤정

- 박지원
공장에서 검정 먼지 드신 만큼 우리 자식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

다.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누리세요. 저희들이 힘이 되어 드릴께요.
큰 아들 자범 올림.

- 민병태
우리 보다 더욱 엄마를 사랑하는 예수님. 엄마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바래요.

'5년 기도 결실로 얼굴에 기쁨가득'

"그동안 누나를 전도하기 위해 누나 집 근처의 교회에 가 보기도 했지만 누나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죠. 이번 '해바라기' 전도집회 소식을 접하고 누나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 초대했습니다."
해바라기 첫날, 본당 1층에 누나(김수자)를 모셔두고 2층에서 누나를 지켜보던 김상인(과천의왕공동체)성도의 긴장한 듯 한 표정은 마지막 날에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로 변했다.
IMF때 사업에 큰 위기를 맞아 아내가 늘 말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김상인 성도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변한 모습을 보면서 누나도 조금씩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누나가 주중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하기 때문에 주일에는 쉬어야 했다"며 누나가 교회에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놓는 김상인 성도에게는 누나를 교회로 모셔왔다는 자체가 설레는 일인 듯 했다.
둘째날, 어제 하루만 참가하겠다던 누나가 3일을 다 나오겠다고 했다는 소식과 "어제는 영국에 가 있는 조카한테 교회에 갔다 왔다며,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더니 조카가 기뻐하더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하는 김상인 성도의 눈에는 주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했다. 평온한 표정으로 집회에 집중하는 그의 모습에서 누나를 위해 계속해 왔다는 5년간의 기도에 대한 믿음이 묻어났다.
누나가 마음의 문을 연 것 같다며 웃음을 가득 머금은 얼굴로 마지막 집회에 참석한 김상인 성도. 이제 누나가 믿기 시작했으니 믿지 않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 집안이 다같이 은혜받기를 원한다며 앞으로 누나에게 더 관심을 쏟아야겠다고 했다. 또한 "이런 전도집회가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고만 있는 영혼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기가 쉽지 않다. 교회까지만 모셔오면 나머지는 교회에서 책임지겠다는 말에 의지했다"며 전도집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르는 사람보다 잘 아는 사람을 전도하기가 더 힘들다고 말하는 김상인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 기도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만나는 시간이 결실을 이룰 것임을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전도의 비결인 것 같다"며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를 포기하지 말라고 전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남동생이 건네는 꽃다발을 수줍게 받아 들면서 환한 미소를 보여주었던 김수자씨.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다.

김수자씨는 해바라기 집회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남동생의 권유 때문에 나오게 되었다. 평소 말도 없고 내성적이어서 자신의 감정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남동생이 이번 집회에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마음이 느껴져 나오기로 결심했다고 말씀했다.

‘그 동안에는 교회에 왜 나오지 않았냐’는 물음에 평소에도 올케가 같이 교회에 가자고 많이 권유했었지만 아침 일찍 직장에 가야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처음에는 남동생의 간절한 권유와 직장까지 찾아와 집회로 초대하는 정성에 ‘하루만 참석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나 첫 날 집회를 참석하면서 그 마음은 어느 순간 변해 하 목사님이 내일 나오실 분은 카드에 표시하라는 말에 저절로 손이 가 표시하게 되었고, 3일 모두 참석할 수 있었다.

둘째 날 김수자씨는 정세훈씨의 노래와 간증을 들으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신의 딸이 생각나 많이 울었다. 10여년 동안 혼자 딸을 키우면서 더 많은 애정을 쏟은 딸에게 그날 저녁에는 미국에서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아침 일찍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는 졸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신기했다. 특히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과 미움과 분노를 버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하 목사님의 말씀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3일간의 집회를 마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조원들과 조장님과 화관을 나눠 쓰고 헤어질 때는 어느새 정이 들어 서운했다. 남동생과 손을 맞잡고는 올해가 자신의 회갑이라면서 “이번 해바라기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다시 태어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김수자씨 모습에서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

*** 출처 : 온누리신문**

http://file.onnuritv.com